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2. 28.(일) 12:00
(지 면) 2025. 12. 29.(월) 조간

‘간부 모시는 날’ 근절, 열린 소통 문화로 변화하는 공직사회

- 올해 전 중앙·지방정부에서 추진한 ‘간부 모시는 날’ 근절 우수사례 발굴
- 각 기관에서 ‘간부 모시는 날’은 근절하고 다양한 소통 활성화 방안 추진

< ‘간부 모시는 날’ 근절 주요 우수사례 >

- (식품의약품안전처) 기관장의 ‘간부 모시는 날’ 근절 당부,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기관 내 ‘점심 문화 개선’ 등을 위한 기관장-직원 간 소통행사 추진
 - (서울특별시) e-인사마당 내 ‘모시는 날 익명신고센터’를 개설(’25.4월)해 본청 및 사업소 소속 직원이 피해 신고를 하고,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
 - (전라남도) ‘공감페이’ 운동을 통해 식사비용을 개인별로 정산하는 원칙을 전 직원에 안내·확산하여 더치페이 문화를 정착하고, 부서 회식 및 식사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공통 경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‘간부 모시는 날*’의 적극적인 근절을 위해 올 한 해 모든 중앙·지방정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.
- * 직원들이 ‘순번’을 정해 ‘사비’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
-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‘간부 모시는 날’ 실태조사**(’24.11월, ’25.4월) 이후 근절 노력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.

** 중앙 (’24.11월)10.1%→(’25.4월)7.7%로 2.4%p 감소, 지자체 (’24.11월)23.9%→(’25.4월)12.2%로 11.7%p 감소

□ 점검 결과, 각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근절 의지를 바탕으로 청렴 교육과 자체 실태조사 실시 등을 실시하며 ‘간부 모시는 날’ 관행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세대·직급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.

○ 충청남도 아산시는 ‘쿠션어* 제안 경진대회’를 통해 선정된 센스 있는 쿠션어 사용을 장려하고, 산림청은 ‘따뜻한 말’ 사용 문화를 확산하여 상호존중 기반의 소통을 활성화하였다.

* 쿠션어(Cushion Word)란 발언을 부드럽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덜 주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

○ 또한 인사혁신처의 ‘청출어람*’, 강원특별자치도의 ‘런치앤런(Lunch&Learn)**’ 등 젊은 직원과 간부 공무원 간 리버스 멘토링을 추진하여 상호 간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

* 청년공무원의 출근길이 어렵지 않길 바람

** ‘눈치 보는 점심’ 대신 ‘소통 있는 점심’을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6급 이하 직원이 멘토가 되고, 간부 공무원이 멘티가 되어 상호 소통하며 배우는 프로그램

○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의 ‘랜덤커피*’, 광주광역시 북구의 팀 간담회비 지원 프로그램 ‘소통 한 스푼’ 등 직원 간 교류 및 연대감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었다.

* 부서가 다른 실무 직원 3인을 매칭하여 소통하는 프로그램(’25년 상반기 59명 참여)

□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·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‘간부 모시는 날’ 관행 근절을 위해 전 중앙·지방정부 조직문화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대책 회의를 개최(’25.1월, 7월)했다.

○ 아울러 근절 권고 공문 발송과 현장 간담회 개최(’25.3~4월, 9월, 11월) 등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근절 분위기를 확산해왔다.

□ 2026년 상반기 중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이번 후속조치 점검 결과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확산하는 등

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.

- 아울러 “‘간부 모시는 날’ 근절이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전 중앙·지방정부와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.
- 김민재 차관은 “이번 점검은 각 기관이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”라며,
- “‘간부 모시는 날’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열린 소통 문화를 조성해 세대·직급 간 자유로운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 공직사회 조직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”이라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참여혁신국 행정제도과	책임자	과 장	강민지 (044-205-2241)
		담당자	사무관	김재현 (044-205-2243)

